

# 2018년도 학술답사 보고서

## 1. 답사 개요

- 일정: 2018. 5. 10(목)~2018. 5. 11(금)
- 장소: 경기도 양평 및 여주 일대
- 지도교수: 김명호, 양승국, 이종묵, 정승철, 김유중, 방민호, 정병설, 조현설, 김중욱, 조해숙, 박진호, 황선엽, 문숙영, 이진호, 나수호, 서철원
- 인솔조교: 조혜진, 한경희, 김수영
- 참가학생: 학부생 58명, 대학원생 47명

## 2. 답사 일정

1박2일 동안 진행되었던 2018년도 학술답사에서는 다양한 장소를 방문했다. 모든 방문지가 역사적이거나 국어학적, 국문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의미만큼이나 고고하고 아름다운 곳들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이다. 나는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그날 밤 황순원의 문학세계를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미 황순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터라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더 유심히 보고 들으며 기억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굳이 그 때문이 아니더라도,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의 존재가 문학세계를 배경으로 한 테마파크이자 그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물질주의가 팽배한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 그 존재를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으리라 하는 게 나의 소견(所見)이다.

황순원은 1915년 3월 26일 평안남도 대동군 재경면 빙장리에서 세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시 104편, 단편소설 104편, 중편 1편, 장편 8편에 달하는 수많은 작품을 창작했으며, 순수와 절제의 미학을 이룬 작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본인의 문학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정신적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몸소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일제강점 당시 읽히지도, 출간되지도 못할 작품을 그래도 은밀하게 모국어로 창작했었다는 사실에서 그의 고귀한 성품이 드러난다.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은 그의 고결한 삶과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테마파크다. 황순원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국민소설로 널리 사랑받는 「소나기」가 현실적 공간으로 재현되어 있다. 이 테마파크가 양평군에 위치한 이유도 소설 내에서 소녀 가족이 이사를 갔던 곳이 바로 양평읍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작품 중 「소나기」를 테마로 삼아 문학촌을 꾸민 것은 황순원의 문학에서 드러나는 동화적이고 인간적인 세계 속에서 일상의 번거로움을 지우고 동심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소나기마을 자체는 약 1만 4천 평의 부지 위에 조성되었고, 문학관은 3층짜리로 규모가 약 8백 평에 이른다. 때문에 소나기마을에 오게 되면 한 명의 문학세계를 위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외면에 압도되기 십상이다. 소나기마을을 건립하는 데에 124억 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이 대단한 금액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 질문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인데, 무언가를 투자했다면 그만한 것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교환논리가 이 질문의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소나기마을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시각에선 납득할 수 없는 공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이 장소의 성격이 곧 문학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시간과 노력까지도 자본으로 환원되는 세상 속에서 상품이 되기 이전의 문학,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문학은 투자 대비 수익이 없는 자본주의적 실패작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학은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창작하는 사람이 있고 문학을 읽는 사람이 있으며 누군가의 문학을 기억하기 위해 문학관을 건립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오로지 자본주의적 논리를 기반으로 움직이지만은 않는다는 한 줄기 희망을 보여준다. 우리는 강철에 비견할 단단함을 지닌 자본주의 이념 속에서도 문학을 찾고 행복을 찾는다. 이념으로 인한 간섭과 갈등을 벗어나 문학을 매개로 인간으로서의 실질적 존엄과 행복을 실현한다는 것은 황순원의 휴머니즘이며 곧 황순원 문학관의 건립 취지를, 그리고 문학 자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삶의 가치이다.

소나기마을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문학 사회가 필요하다. 아니, 역사 사회든 철학 사회든 좋다. 자본을 얼마나 투자해 얼마를 받을지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박하게라도 행복해지고 싶다. 그것이 자본주의적으로 는 부질 없는 일일지라도 그 행복을 알아주고 키우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

많은 것 중 왜 하필 문학이냐라고 묻기 이전에 ‘문학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느냐고 물어보고 싶다. 「소나기」 속 소년과 소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아도 가슴에 닿는 무언가에 웃고 우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산하기 전에 향유하는 삶. 그런 문학 사회가 언젠가 각자의 땅에 드리우는 그날을 꿈꾼다.

(작성자: 문성호)